

깍지

Korean aucha perch

| *Coreoperca herzi* (Herzenstein, 1896)



분 포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천과 동해안의 왕피천에 서식한다.

형 태 몸은 옆으로 길고 납작하며, 주둥이는 뾰족하다. 입에는 이빨이 있고, 위턱 보다 아래턱이 길다. 체색은 몸 전체가 녹갈색으로 등 쪽에서 배 쪽으로 검은색 반점이 있으며, 아가미 뒤에 파란색 반점이 있다. 금강에서 동해 남부까지 서식하는 깍지는 몸에 흰점이 없는 반면 한강 수계에 서식하는 깍지는 흰점이 있어 차이를 보인다.



다양한 체색과 무늬를 나타내는 깍지

낙동강 수계에 서식하는 꺾지



한강 수계에 서식하는 꺾지



1) 환경조성

꺾지의 자연 서식처는 바닥에 자갈이 많고 은신처가 되는 큰 바위가 있는 곳에 주로 서식한다. 유속은 비교적 완만한 것이 좋으며, 야행성으로 수조 내부의 빛은 너무 밝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다. 수조 내 환경조성은 바닥에 입자가 굵은 모래와 자갈이 섞여있는 것을 깔아주고 수초는 줄기가 약하지 않은 것으로 심어주면 좋다. 상류 쪽의 서식지는 수초가 없고 유속이 빠르며, 중하류로 갈수록 유속이 느려지고 수초가 있는 곳에 서식하기도 한다. 치어기 때는 수초에 은신하여 먹이활동을 하며, 성장하면서 돌이나 바위틈에 서식한다. 이처럼 수조 내 환경조성을 할 때는 사육하고자 하는 꺾지의 크기에 따라 사육 환경을 조성해주면 좋다. 인위적인 유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판되고 있는 수류발생 모터, 수중펌프 등을 사용한다.



수조 사이에서 유영중인 꺾지

2) 먹이주기

자연에서 채집한 꺅지는 주로 살아있는 먹이를 먹는다. 작은 물고기나 새우류를 잡아서 수조에 넣어주고 전량 먹은 후 다시 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생먹이를 잡아서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냉동먹이 또는 배합사료 순치가 필요하다.



먹이먹은 뒤 입을 열고 있는 꺅지



바위 사이에서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꺅지



주변 환경 보호색을 띠고 있는 꺅지 치어

✓ 꺅지의 사료 길들이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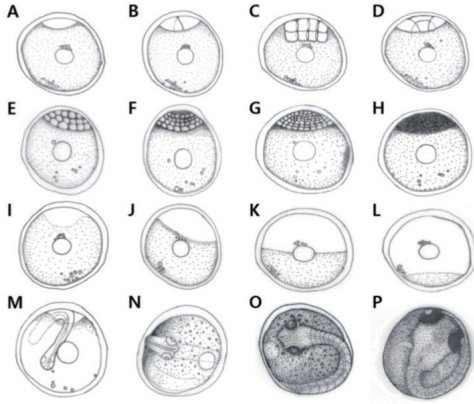
자연에서 채집한 꺅지는 크기에 따라 5~7일 정도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때 시판되는 냉동새우를 먹는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준다.

전장 5cm 정도 되는 치어의 경우 배합사료로 길들이 수 있다. 마찬가지로 2~3일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물에 가라앉는 침강성 사료를 소량 주면서 먹이 먹는 반응을 관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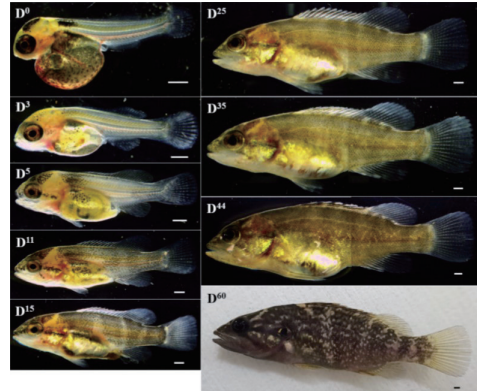
먹이의 종류는 시판되는 관상어, 양어용 사료를 입 크기에 맞는 것으로 주어야 한다.

사료 길들이기가 완료되면 생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어 사육에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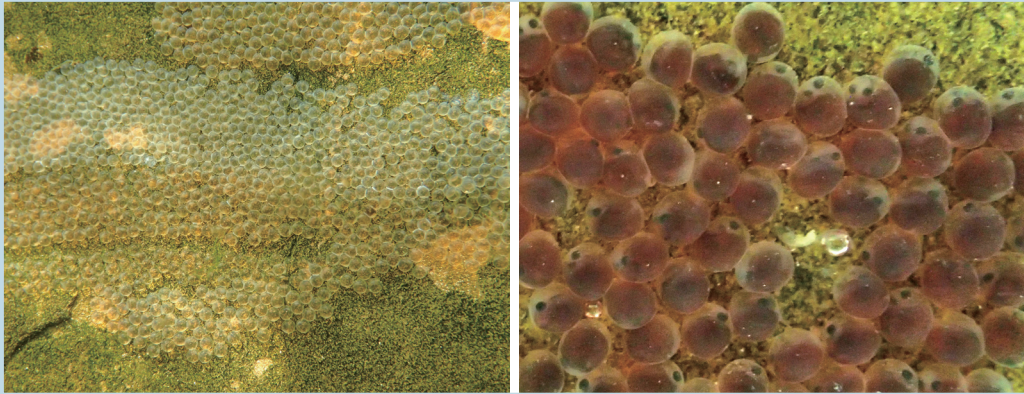
주의할 점은 사료먹은 후 잔량의 찌꺼기가 남을 수 있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제거해주어야 한다.



난발생 과정(Park et al., 2020)



자치어 형태발달(Park et al., 2020)



바위에 산란된 꺾지 수정란

3) 번식방법

자연에서 암컷은 알을 바위에 산란하면 뒤이어 수컷이 수정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산란과정이 끝나면 암컷은 산란장소를 떠나고 수컷이 부화하기까지 알을 보호한다. 암컷과 수컷의 구분은 형태적으로 어렵지만 크기를 비교했을 때 수컷이 조금 더 큰 편에 속한다. 꺾지는 일부다처제로 같은 산란장소에서 수컷 1마리와 암컷 2~3마리가 순차적으로 산란하는 경우도 있다. 산란이 가능한 크기는 8~10cm 정도로 수조 내에서는 작은 돌, 유목 등에 은신처나 구조물에 산란하기도 한다.

번식에 적합한 수조 내 꺾지 사육밀도는 3자 기준 10마리 내외로 바위나 은신처 등을 많이 만들어 주면 좋고 영역다툼을 하기 때문에 은신처가 없으면 약한 개체의 몸에 상처가 나거나 폐사에 이르게 된다. 산란이 끝나면 수컷을 제외한 꺾지들을 다른 수조로 이동시키거나 알이 붙은 구조물만 별도로 옮겨 관리해준다. 산란 시기는 4~6월로 산란수조 내 조명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먹이는 배합사료를 순차시켜 주거나 냉동생사료 또는 살아있는 생먹이를 준다.